

오늘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대법 판단 주목

심리 속도전 34일만에 결론
대법원장이 직접 주문 낭독
상고 기각·파기환송 ‘촉각’
TV로 전 국민 선고 생중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일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

을 선고한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TV로 생중계되고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나올 필요는 없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전합 사건은 재판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 이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 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검찰만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

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 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이 파기지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선고·확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으면서(파기) 직접 형량을

정해 선고(자판)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심에서 형량을 정하는 양형 심리가 이뤄지지도 않았다.

이날 선고는 지난달 28일 사건이 접수된 뒤 34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 측의 답변서 제출 기한 종료 이후인 지난달 22일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관들은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기 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다.

두 번째 전원합의 기일인 24일 표결이 이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 표결일에는 그날 대법관들 사이에 격한 논의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재판연구

관 보고서를 읽고 각자 자기 의견을 정해와서 표결만 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결론에서는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나뉘었을지, ‘판장일치’가 이뤄졌는지 주목된다. 의견이 갈라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각각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진보 성향으로, 노경필·임상필·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마용주·박영재 대법관의 경우 보수 쪽에 가까운 중도(중도·보수) 성향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그 외 대법관은 대체로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서울대 교수 출신 권영준 대법관은 민사 판례연구회 회원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 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무 무죄를 선고했다. 최합준 기자·연합뉴스

“지역언론 위기, 국가 중대 아젠다로 인식해야”

박수현 의원 “재정지원 확대”

국회에서 지역언론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실제 재정 확대가 이뤄질 경우 지역언론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지역언론의 생존 위기를 국가 차원의 중대한 아젠다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역언론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지키는 동시에, 글로벌



관점에서 지역 이슈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금 우리는 지역언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로 성장

하느냐, 아니면 사라지느냐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통해 지역언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 지역언론의 목소리를 감안할 때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 모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언론과 관련해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디지털 수익모델 구축 지원, 취재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보다 실질적이고 과감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역언론의 위기를 단순한 산업구조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국가적 책무로 인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행복도, 성장 잠재력 등의 기회가 지역에 골고루 향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역언론의 발전과 활동 지원이 중요하다. 지역언론 지원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현수 기자



5·18 학술 심포지엄

30일 광주 5·18기록관에서 열린 ‘해석의 영역에서 본 실제적 진실-5·18과 계엄’ 학술심포지엄에서 차영귀 서강국제한국학선도센터 책임연구원이 ‘5·18 전사(前史):사전전권음모의 실제적 접근’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전경선 도의원 “2027년 전남 국립의대 반드시 이뤄야”

본회의서 협력·단결 촉구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30일 “정부는 2027학년도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논의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의 국립의대 설립 약속에 잠시나마 희망을 품었지만, 그 약속은 허공 속에 흩어졌고 남은 전 전망뿐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전남의 응급환자는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진료를 위해서는 먼 길을 헤매야 한다”면서 “매년 70만명 이상의 도민들이 불편한 몸으로 낯선 타지 병원에서 서러

진료를 받으며 깊은 한숨을 내뿜고 있다”고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토로했다. 전 의원은 특히 “2024년의 전라남도

를 거치면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는 않았는지, 또 의대 신설을 위해 예비비로 집행한 10억원의 용역비가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모든 과정이 깊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국립의대 설립이라는 역사적 목표 앞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협력과 단결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의료 불평등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끝내고,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전라남도를 만드는 첫걸음, 바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빛고을장학재단, 상반기 장학생 318명 선발

빛고을장학재단은 30일 “2025년 상반기 장학생 318명을 선발, 장학금 2억 7,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학생 선발 규모는 학업장려 장학생 178명, 생계곤란 장학생 107명, 직업계고 장학생 33명이다.

선발대상은 장학금 공고일(2025년 4월30일) 기준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중·고·대학생이다.

학업장려 장학생은 광주지역 중·고

등학교 재학생 중 직전 학기 이수 과목의 과반수 이상에서 원점수 D이상(고등학생의 경우 60점 이상)을 받은 학생 중 생활 정도가 어려운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생계곤란 장학생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직업계고 장학생은 기탁자가 지정한 분야의 직업계고 고등학생을 선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를 대폭 상향했다. 중

학생(93명)은 30만원에서 50만원, 고등학생(184명)은 50만원에서 80만원, 대학생(41명)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오는 5월22일까지 각 대상별 추천기관 등을 통해 장학생을 모집하며, 6월 중 장학생을 최종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한편, 빛고을장학재단은 지난해까지 총 6,204명에게 장학금 47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김용현 기자

국제농업박람회 입장권 최대 30% 할인

행사장 사용 쿠폰도 제공

(제)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30일 “2025 국제농업박람회 입장권 사전예매를 시작, 30% 할인 혜택과 함께 행사장에서 사용가능한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나주산포면 전남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린다. ‘인공지능(AI)과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키우는 케이(K)-농업’을 주제로 미래 농

업의 비전과 혁신기술을 선보인다.

박람회에는 국내·외 350여 기업과 단체가 참여해 농업 관련 최신 기술과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우수농산물 수출상담과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 전남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한 입장권 할인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전남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전에 예매하면 일반권 7,000원, 청소년권 6,000원, 어린이권 2,000원으

로 구매할 수 있다.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행사장에서 사용 가능한 3,000원 상당의 쿠폰도 제공된다.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오프라인 사전예매에선 일반권 할인만 가능하다.

5월 중순 이후 인터파크와 박람회 공식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판매에선 일반권, 청소년권, 어린이권 모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사전예매는 박람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람회 관계자는 “입장권 예매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과 관람객이 혜택을 누리면서 박람회를 즐기길 바란다”며 “이번 박람회는 농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인생을 울리는



후라면

SHIN RAMYUN

“라면은 역시 신라면이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라면이 있습니다. 인생을 울리는 농심 신라면
누구라도 좋아하는 맛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환영받는 맛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신라면의 맛, 오늘 맛있는 신라면 한 그릇 드셔 보세요. 맛을 보면 역시 신라면입니다.

